



행복한 책읽기

지젝의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999년 위쇼스키 형제가 만든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빨간 알약을 먹고 다른 현실을 본다. 불에 탄 잔해만 있는 황량한 풍경, 세계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시카고의 모습이다. 저항군 지도자 모피어스는 아이러니한 인사를 건넨다.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캉의 '실재'가 현실에 없지만 '잃어버린 무엇'이라면 라캉 정신 분석학의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지젝은 현실에 있지만 대타자법, 이데올로기, 더 크게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의해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무엇'이 실제라고 말한다. 네오가 본 것은 그 동안 존재했지만 배제된, 즉 허려한 이미지가 겉친 진짜 현실인 셈이다.

그렇다면 진짜 현실을 가린 가

종차별은 출신과 피부색이 아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라니...). 지젝은 '9·11 사태'의 원인이 미국의 '권력 결여'가 아닌 '불질 과잉'이라고 한다. 주변인으로 물려난 호모 사케르의 반란이다.

하지만 '9·11 사태'는 미국의 패권을 모든 측면에서 전례 없이 강화시켰다. '테러와의 전쟁', '긴급사태'를 발동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모든 것'을 '테리'라고 명명하면서 일상생활까지 규제했다.

무엇보다 적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줌으로써 증오



백화점 갤러리들 수준높은 전시 고품격 문화 제공

신세계, 1층광장 전체 활용 '마릴린, 포에버'전
롯데, 친숙한 작품 한자리에 '... POP ART'전

백화점 갤러리는 자연스럽게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품격 문화 예술 활동을 제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백화점들의 대표적인 미술 마케팅 공간이다.

특히 최근엔 수준 높은 전시를 다수 기획해 선보이는 등 꽃을 많이 들이고 있는 흐적이 엿보인다. 평소 미술 전시장을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는가 하면, 갤러리뿐 아니라 백화점 1층 광장 전체를 전

시장으로 기획, 활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다. 물론, 관람료도 없고 도슨트 전시 설명 서비스도 이뤄진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올 해 마련한 17차례의 기획전은 웬만한 갤러리 수준을 뛰어 넘는다. 굵직한 국제 기획 전 뿐 아니라 '진도 소리'전, '가사문화권을 찾아'전 등 지역 정서를 반영한 전시까지 아우르며 추진하는 전략도 남다르다. 오는 22일까지 '마릴린 먼로의 삶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마릴린, 포에버'(Marilyn, Forever)



롯데갤러리 광주점이 다음달 7일까지 여는 'The great of POP ART' 전에서 선보이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두 개의 그림-데그우드'.

<롯데갤러리 광주점 제공>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22일까지 여는 '마릴린, 포에버'(Marilyn, Forever) 전 전경. 마릴린 먼로의 사망 50주기를 맞아 마련한 전시회에는 먼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들로 채워졌다.

<광주 신세계갤러리 제공>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라

상의 현실인 매트릭스(대타자)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 메커니즘의 수수께끼다. 매트릭스는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인간의 향락을 자양분으로 삼기 때문이다. 인간이 격렬한 패감을 느낄 때란 그것이 신체적 에너지가 되었건, 경제적인 재화가 되었건 축복할 때가 아니라 항상 소모할 때이지 않은가.

매트릭스는 연일 '이미지'(광고)를 만들어 소비를 부추긴다. 우리는 매트릭스의 향락 도구이며, 소모되는 베테리처럼 생명 물질을 흡수당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확장인 현실 속에서는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물질'이 우선시 된다.

가진 자는 매트릭스 안에서 기득권을 획득하고 못 가진 자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가 된다. 호모 사케르는 끊임없이 주변(국)으로 끌려온다. (미래의 인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전은 지난 1월 마련한 '에두아르도 칠리다'전을 잇는 국제 기획 전시다.

마릴린 먼로의 사망 50주기를 맞아 마련한 것으로, 전시장은 먼로의 목소리가 오래된 LP판을 통해 흘러나오고 먼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로 가득하다.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마릴린 먼로의 사진, 친필 서예, 우표, 키티 더, 음반, 책과 영화포스터, 잡지, 다큐멘터리 등 62점. 감독 겸 시나리오작가 로렌스 슐러가 지난 1962년 먼로의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 촬영 현장에서 찍은 누드의 먼로 사진 등은 관객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1층 광장을 전시장으로 활용, 작가들의 설치 작품으로 채운 '크게 보기 작게 보기'전을 기획하기도 했다.

롯데갤러리 광주점의 기획 전시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낙제한 현대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전시를 기획해 쇼핑객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발길을 끌

어들이고 있다.

우선,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The great of POP ART' 전은 친숙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흥미 있는 기획이다.

마릴린 먼로, 코카콜라 등 현대 사회의 익숙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다뤄온 앤디 워홀의 작품이나 만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업으로 유명한 로이 리히텐슈타인, 재치가 넘치는 낙서화(Graffiti Art)에 묵직한 사회·정치적 메시지까지 담아 미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키스 해링 등 팝아트작가 5명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달에는 비틀즈 탄생 50주년을 맞아 '비틀즈 50년, 한국의 비틀즈 마니아' 전으로 색다른 불거리를 제공하는가 하면,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미술을 들여다보는 '매직 리얼리즘- 라틴아메리카 현대미술' 전(6월), 5·18 광주민중항쟁 32주년을 맞아 주진했던 '희망을 춤추다 - 고암 이응노' 전(5월) 등 매월 굵직한 전시를 마련해 오고 있다. /김지기 기자 dok2000@

아픔없는 세상을 위한 노래 함께 불러요



주금자

박계

김미옥

보고 싶어했었다. 아이들은 이날 무대에서 '도레미송' 등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을 부른다.

이번 음악회는 오는 12월 15일 교토 '고향의 집'에서도 진행되며 오사카 공연도 추진중이다. 고향의 집은 제일동포 노인들과 일본 노인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유키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이 오사카·고베에 이어 세번째로 문을 연 공간이다. 티켓가격 5만원~1만원. 문의 010-4642-1159.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년을 맞는 올해 각계 인사들로 '윤학자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 심포지엄과 'UN 고아의 날' 제정 추진 선언대회(31일 목포시민체육센터) 등을 개최한다.

12일 오후 8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추진 기금 마련 '어울림 음악회'는 지역 예술인들이 정성을 보탠 프로그램으로 기념사업회 한일 친선대사를 맡고 있는 김미옥(52)씨가 기획했다. 김씨는 1978년 목포 제일여고 2학년 당시 목포 공생원생들로 구성된 수선화 합창단의 일본 공연 때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윤기 이사장과 인연을 맺어왔다.

이번에 출연하는 음악인 가운데 최고령인 주금자씨 역시 공생원과 인연이 깊다. 수선화합창단의 1대 지휘자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고 일본 공연도 진행했었다. 소프라노 박계씨 역시 오랫동안 재단과 인연을 맺고 기부를 해왔었다.

이번 공연에서 눈에 띄는 출연자는 김희언양 등 7명의 어린이들이다. 음악교사였던 윤학자 여사는 생전에 꼭 '사운드 오브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이태리가구

40% OFF ~ www.hong79.com(홍천구닷컴)
10월 25일까지 동구청앞

동스페이스 SPACE
-1899-0240

모던가구

11월판매 40% 예약판매
다른가구는 절대 못 보십니다.

홍스페이스가 30년만에
모던가구를 처음으로 선보입니다.